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 양식과 그 의미*

나은진**

1. 사이버 역사소설과 신세대 정치 담론
2. 역사소설 양식과 정치적 이상향의 전통
3.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식과 담론
 - 3-1.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태
 - 3-2. 역사소설의 사적 전개와 이상향 담론
 - 3-3. 대체역사소설과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
 - 3-4.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식과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
 - 3-4-1. 사이버 역사소설의 인물론 - 역사를 주도하는 영웅
 - 3-4-2. 사이버 역사소설의 시공간성 - 이동과 창조의 적극적 혁명
 - 3-4-3. 사이버 역사소설의 서사구조 - 투쟁과 성취의 실천 과정
4.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의 의미

국문요약

기존의 역사소설 개념은 협소하게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 특히 장편소설에 적용되었다. 신화나 전설, 민담에 나타난 전통적인 영웅의 서사는 특정한 시공간성을 전제로 특정한 서사의 양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고전소설에서는 영웅의 일대기 서사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80년대 이후 역사소설들은 과거와 다른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과제번호A00101)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미학적 양식을 채택함으로써, 역사를 분리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 작가는 역사해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편성하며, 더 나아가 현재와 이어진 과거를 아예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의 미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 이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해 사이버문학의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본격화된다.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양하게 허구화된 형태로 형상화된다. 실존인물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역사소설의 주체는 변형을 꿈꾸는 허구적 인물이자 내포작가가 맡는다. 독자는 허구적 인물의 사상과 정치적 이상을 자기동일시를 통해 공유하며 교류하고, 텍스트 외부에서 창작과정을 지원하거나 부텍스트로 재생산에 적극 참여한다. 사이버 역사소설은 보다 다양한 허구화 방식을 시도한다. 정치적 이상향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대안으로서의 타자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사이버 역사소설은 자체의 미학적 구성방식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담론을 드러낸다. 그것은 대안으로서 새 이상향을 건설하는 과정이고, 또한 현실의 디스토피아를 탈출하기 위한 타자성의 유토피아 의식이다.

주제어

역사소설, 사이버문학, 영웅서사, 이상향, 담론, 역사의식, 정치적, 타자성, 대체역사소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1. 사이버 역사소설과 신세대 정치 담론

9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사이버 공간 내 문학들은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사이버 문학들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접근은, 주로 디지털 문학의 존재 양상과 특질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생산된 문학 텍스트들의 장르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기존 문학과와의 변별 논리 위에서 세대론적 분할론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생산된 제 문학들은 한국문학의 전통성을 토대로 도출된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새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신화나 전설, 영웅소설의 맥을 따라 한국문학은 허구적 서사의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당대의 담론을 덧씌워 작품을 생산하고 향유해 왔다. 최근의 사이버 역사소설 붐 또한 전통이라는 보편성을 토대로 깔고, 그 위에 현대사회에 대한 동시대적 담론을 담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재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문학에서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들의 재등장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양상의 담론을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담론들은 동시대의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실제의 역사가 제도권 안에서 국가에 의해 걸러진 의미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달되거나 대중매체의 공식담론에 의해 상투적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면, 사이버 소설이 드러내는 역사에 대한 담론은 실천적인 저항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체험한 경험으로부터 재현된 역사,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정치와 제도를 가진 허구적 이상세계로서의 역사가 사이버 소설이 드러내는 역사의 새 양상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소설쓰기’라는 담론 행위를 통해 재정립하고자 하며, 역사의식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성립시킬 가능성을 작가와 인물과 독자의 관계로서 규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사이버 역사소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이상향을 드러내고, 구성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서사적 전통위에서 사이버 역사소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서사물에 구조화된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 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연계되며, 작품의 생산자와 독자층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공감대의 핵심으로서 이 양식의 서사물이 존속할 수 있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창작될 때 함

추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담론과 미학적 완성도 두 가지를 작품 텍스트들의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조망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국문학적 전통 위에서 통시적 흐름과 함께 당대의 동시성을 공시적으로 보는 연구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역사소설에 대한 기존의 검토는 대부분 역사성과 문학성의 상호관계, 장르적 속성으로서의 대중성이나 통속성, 혹은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차원, 혹은 역사소설의 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역사성과 문학성의 상호관계에서, 역사소설 특유의 이중성 문제가 중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싣는가에 따라 대상 소설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곤 했다. 역사성의 재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¹⁾ 혹은 작가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는가가 바로 문학성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인식되곤 했다.²⁾

두 번째 문제로서 역사소설의 장르적 속성을 논할 때는 흔히 역사소설의 창작방법론이나 장르적 정체성의 문제가 함께 언급되었다. 대중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부딪힐 때마다, 월탄 박종화를 비롯한 역사소설 작가들은 옹호론³⁾의 일종으로서 ‘역사를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는 식으로 역사의 허구화를 통해 역사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역사소설을 도구화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나는 역사소설의 형태를 빌어서 문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현대인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땅, 이 조국을 아름다우게 건축해 보자는 것이다.⁴⁾

- 1) 오성호, 「김동인 소설의 반 역사성」, 『역사비평』 1989년 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1989, 193-201쪽.
- 2)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 1967 봄.
- 3) 염상섭, 「역사소설의 시대」, 『조선일보』, 1934.12.20.

세 번째 유형으로서 역사소설을 다룰 때는 주로 대표작가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개별논의가 이루어졌다.⁵⁾ 앞의 두 유형에 비해 예술미학적인 평가가 더 가미되기는 했지만, 작가의 전기적 요소⁶⁾나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적 소재 역시 배제될 수 없는 연구의 요소였다. 동일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의 구성이나 인물 설정, 세계관 등이 종종 비교의 대상⁷⁾이 되었으며, 연구의 결론은 문학성이나 역사성 혹은 양자의 조화로서의 미학에 머물렀다.⁸⁾

네 번째 유형으로서 역사소설의 사적 흐름을 다루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첫째는 연대별 구분에 의해 특정 시대의 역사소설을 동질하게 연구하는 것⁹⁾, 혹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문학사적 관점에서 역사소설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다.¹⁰⁾

사이버 소설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 서사체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사이버문화에 대한 논의와 병행하여 본격화되고 있다.

- 4) 박종화, 「삼국풍류 서문」, 『한국삼대작가선집』, 삼성출판사, 1970.
- 5)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역사소설가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 현진건, 채만식, 홍명희, 박태원 등이다.
- 6) 조진기, 「작가와 역사해석 - 춘원, 동인, 월탄의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1집, 1974.
- 7) 신용협, 「역사소설과 시점문제-단종애사와 대수양의 경우」,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1985.
- 8) 변병선, 「입병 양란과 역사소설 :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소설의 유형분석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1983.
- 9) 홍성암, 「역사소설의 양식 고찰 - 해방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 10) 홍효민, 「역사소설의 근대문학적 위치」, 『현대문학』, 1958.8. 164쪽.
- 11) 박계홍, 「한국역사소설사(1장-3장)」, 『어문연구』 제3집, 1963.
- 12) 박계홍, 「한국역사소설사(4장-7장)」, 『어문연구』 제3집, 1963.
- 13) 홍성암,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양어문』,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 14) 홍효민,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현대문학』, 1955.2. 43쪽.

그러나 존재 양식으로서의 디지털 문화적 속성¹¹⁾에 주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별 작품론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미학적인 함량 미달이라는 순수문학 측의 강력한 의견제시와 함께, 기존 문학에서의 평가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이버 소설은 기존 문단 소설과 다르게 아마추어 작가들에 의한 자기 반영적 서사가 많고, 작가와 독자, 작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열려있는 미완의 서사이기도 하다.¹²⁾ 또한 장르적 관습성에 의존하여 창작하되, 작품의 개별성을 보존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 장르적 관습을 배격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지닌 서사이다. 같은 하위 갈래 범주에 소속되더라도, 갈래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타 작품과 차별화되기를 추구하며, 독창성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 또한 크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역사소설은 기존 역사소설의 관습을 배격하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장르적 속성으로부터 배출된 것이다. 대체역사소설이 등장과 동시에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¹³⁾ 사이버 역사소설은 등장한 이후에도 극소수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¹⁴⁾

11) 박상천, 「매체의 변화와 문학의 변화-인터넷 상의 사이버 문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한국사회이론학회, 2001, 202-227쪽.
이용욱, 「디지털 서사체의 미학적 구조(2): '전자종이'로서 인터넷 게시판의 문학적 가능성」, 『어문연구』43집, 2003, 561-579쪽.
12) 오양호, 「디지털 시대 한국소설」, 『한민족어문학』41집, 2002, 313-335쪽.
13) 김명석, 「SF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서사 비교」, 『문학과 영상』, 2003 봄-여름, 71-102쪽.
14) 송승철, 「가상역사 소설론 : 허구적 역사 구성과 실천적 관심」, 『실천문학』 1993년 겨울, 292-310쪽.
황국명, 「현대소설의 가상현실재현 전략과 정치적 환상연구」, 『한국문학논총』 35집, 한국 문학회, 2003.
황국명, 「한국현대성장소설의 정치적 환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5집, 한국문학회, 1999.12. 333-383쪽.

더구나 사이버 역사소설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을 과거의 서사적 전통과 함께 통시적인 연계성 위에서 검토하면서 공시적인 특수성을 찾으려고 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이상향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허구적 미학에 의한 역사의 재현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실천 담론을 함축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역사소설 양식과 정치적 이상향의 전통

2-1. 고전서사체의 역사소설 양식과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

공시태로서의 사이버 역사소설 양식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시적인 역사소설 흐름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화와 고전소설 중 영웅의 서사나 전기의 형태를 가진 서사체의 양식을 먼저 검토한다. 특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서사 양식을 드러내는 영웅서사의 군담류나 정치적 이상향을 표방하는 몽자류 소설들, 군신관계를 다루는 소설들을 중심으로 역사소설과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을 추출할 수 있다.

정도(正道)를 꿈꾸되 권도(權道)로서 제시하는 것이 이와 같은 소설들의 정치적 이상 형태이다. 물론 소설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유교적이지도 교묘적인, 혼합화된 한국적 문화 기반의 이상향을 허구적으로 구성해 내기도 하며, 특정한 공간으로서 그 이상향을 대변하기도 했다. 동양적인 낙원으로서 무릉도원의 서사적 의미는 바로 정치적 이상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상향들은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상향이며, 현실에 불만족할 때, 그 대적점에 설 수 있는 뒤집힌 거울로서의 이상향이기도 하다. 타자성에 기반한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이기 때문에, 이상향

을 이루는 서사적 양식에 대한 미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의 결여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영웅적 서사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전(傳) 양식과 함께 『임진록』과 같은 민중의 소망을 담은 역사 소재의 고전 서사체들, 혹은 『금오신화』나 설화류가 보여주는 우화적 세계, 알레고리적 세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이상향의 대표적인 형태를 이루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 아동문학으로서의 위인전과 전래동화, 개화기 소설을 거쳐 현대소설로 그 맥락이 이어져나가게 된 것이다. 역사소설이라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되,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이 독자에게 문학적 흥미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역사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역사소설의 예술미학적 인식은 ‘역사에서 테마를 잡아 작가의 생생한 예술가적 조탁을 거쳐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야’ 하며, 역사적 사건이 허구화 되면서 역사성과 문학적성을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고 본다.

역사와 허구적 서사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관점은 소재와 완성, 원인과 결과라는 이분법적 관점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역사소설의 뿌리는 정사와 전(傳)을 분리하는 역사기술의 관습에서 출발하며, ‘전’의 양식은 고대소설을 거쳐 현대 아동문학의 위인전 양식으로 연계된다. 전, 고대소설, 위인전의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전기 양식이며, 이 전기는 한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영웅의 일대기’ 양상을 이룬다.¹⁶⁾

15) 윤고종, 「역사소설과 산문정신」, 『펜』, 1955.12. 49쪽.

16)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2. 근대 이후 역사소설 양식과 정치적 이상향의 담론

개화기 역사 서사의 두 갈래를 이루는 계몽적 서사와 신소설의 서사로부터 출발하여,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를 거쳐 본격화되는 근대 역사소설의 갈래, 가족사 연대기를 표방한 가족의 서사, 리얼리즘을 표방한 대하역사 역사소설들에 함축된 정치적 담론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작가 자신의 역사의식이 창작의 동기가 되거나, 현실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희망의 담론으로서 허구화된 역사 안에 정치적 의식을 담거나 하면서, 근대 이후 역사소설은 작가의 역사의식, 정치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예술미학적 의식을 표방하는 역사소설들은 역사에서 소재를 구해 작가의 허구적 예술화 과정을 거쳐 재형상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와 독자에게 있어서 주요하게 수용되는 요소는 역사적 사건의 실재성이나 실증의 여부라기보다는 그 시대환경과 제도, 의식 속에서 활동했던 인간의 형상화에 대한 문학적 환기이다.

서구의 역사소설이 근대적 양식으로 시대와 병행하여 출현했던 것에 비해, 우리의 역사소설은 과거로부터의 풍부한 영웅 서사와 역사전기적 요소를 계승했다는 연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전통이자 장점인 반면에 이런 전통을 가진 장르의 속성 상, 애초부터 역사기술의 문제나 영웅의 삶을 문학의 틀 안에서 기록한다는 전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기도 하다. 장보고 소재 서사의 역사소설 양식 역시 우리나라 역사소설의 주류에 해당되는 영웅서사이자 역사전기 서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더구나 민족주의적 세계관이 시대의 난관을 돌파할 대안점으로 제시되었던 개화기 이후부터, 우리의 역사소설은 동일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 요소를 이면에 깔고 근대로 유입되었다. 정사 뒤에 덧붙여진 열전, 고전소설로부터 시작해 역사소설의 초기 작가였던 단재 신채

호, 춘원 이광수로부터 역사소설의 장르를 정립한 월탄 박종화, 장르의 영역을 확대한 유주현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소설들은 특유의 서사적 양식을 공유해 왔다.¹⁷⁾

주인공을 설정함에 있어 왕, 장군, 고승 등 역사상 유명인을 선택하고, 사건을 전개할 때는 주인공에 밀착된 역사상 중요사건을 핵심 모티브로 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역사소설의 양식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전면화 되기보다는 시대적 국가적 요청에 부응한 개인의 우수성이 영웅의 조건으로서 더 부각된다. 또한 정사 중심의 교과서적 역사관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유교적 윤리덕목과 권선징악의 주관적 도식이 평가의 주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흥미소가 될 만한 모티브가 중간에 삽입되는데, 특히 감상적인 연애담과 가상의 무협담, 대중의 욕망을 대리실현 하는 것으로서 권력의 성취 등의 오락적 요소가 성 인용에 걸맞게 두드러진다. 역사소설들은 대체로 역사적 소재의 무게가 실린 윤리적 덕목과 함께 대중적 오락성, 이 두 가치를 예술적으로 조화시킨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오기 마련이다.

“실록대하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하위장르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역사기록인 실록의 형태를 빌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되 비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으로 소설로서의 허구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실록’이라는 이름은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장치가 되며, 그만큼 허구화된 부분의 예술적 정교함도 강하게 요구받는다. 더 나아가 역사소설에 있어 최상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는 예술양식이 갖는 인간과 현실의 내면적 구조적 탐구와 조형미라는 보편적 속성을 ‘역사’라는 소재에서 발굴해 조화시

17) 홍성암, 「역사소설의 양식 고찰-해방 이후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11집, 284-87쪽.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이처럼 역사에 대한 작가의 기술태도에서 드러나는 역사소설의 작가의식은 바로 역사소설에 대한 관념과 창작의 동기, 소통의 구조, 수용에 대한 요구를 형성한다.¹⁹⁾ 독자들은 장편역사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화된 영역을 변별해 나간다. 작가가 교묘히 섞으면 섞을수록 역사와 문학의 영역은 독서과정에서 변별을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의 역장을 형성한다. 역사와 문학의 이중적 잣대가 적용될수록 역사소설의 문학성은 높아지고, 혼합의 방식은 작가의 역사인식과 문학적 독창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3.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식과 담론

3-1.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태

본고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소설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역사의 본질보다는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원적으로 수용하는가 하는 상대적인 역사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²⁰⁾ 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대체역사 소설들은 위기의 현실세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유토피아적 열망을 함축하고 있으며, 가상의 역사를 내세움으로써 현재의 현실인식을 투철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낯설게 하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8) 박태순, 「역사의 서사적 구조와 서사문학」, 『사회평론』 4월, 147-8쪽.

19) 김경수, 「역사의 공동(空洞)과 역사소설의 위상」, 서평, 김원우 「우국의 바다」론, 549-60쪽.

20) 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역, 청아출판사, 1991.

A. O. 울드리지, 「루카치 이후의 역사소설」, 『외국문학』 1989년 겨울호, 1989.
Hayden White, 천형규(역),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메타역사』, 문학과지성사, 1991.

이영도의 『눈물을 마시는 새』는 동서양이 혼합된 퓨전으로서 간주되지만, 그 핵심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담론이다. 또한 『신군주론』이나 『카르마의 구슬』, 『붉은 황제』 등의 소설들은 각각 정치 지도자가 펼치는 정책과 국가경영을 통해 이상향을 실현시켜 나가는 소설이기도 하다. 국가 경영을 통한 정치적 이상향의 실현은 장편소설로서 인터넷 게시판에 연재되는 동안,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결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은 독자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경영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소설 중에는 결말짓기가 유보되고 있는 소설들이 다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 과정의 변동이 연동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상향의 사이버 역사소설들은 우리의 전통 서사체 영웅군담류의 소설이 지닌 서사행정과 유사한 흐름을 타고 있다. 때로 그들이 꿈꾸는 이상향은 정치적으로 공자의 대동(大同)적 이상사회와 유사하거나 그리스적 대안 이상사회인 민주적 낙원으로서의 Arcadia와 유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3-2. 역사소설의 사적 전개와 이상향 담론

우리의 전통적인 서사물들 중에서 신화나 전설, 민담에 나타난 영웅의 서사는 특정한 시공간성을 전제로 하여 특정한 서사의 전개방식 영웅의 서사행정이라는 것으로서 발전시켜 왔으며, 영웅의 일대기 서사는 고전소설에서 영웅의 서사, 혹은 영웅 군담류 소설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²¹⁾ 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 여성영웅소설 등의 형식으로 이어져 온 이 서사의 양식은 때로는 효나 충이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²²⁾를 걸고로

21) 임성래, 「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연구」, 『배달말』, 배달말학회, 1995

22) 조민환, 「노자의 이상향에 관한 연구-노자의 소국과민을 중심으로」, 『동양철

내세우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지배담론에 반하는 저항적 담론을 포석으로 사용한다.²³⁾ 소설에 나타난 이상향이 반드시 유교적 정치철학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고 도교적, 혹은 불교적, 민간신앙적 요소가 교묘히 결부되면서 독자로서의 서민대중이 꿈꾸는 욕망의 실현체 양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²⁴⁾

개화기에 이르러 신채호 등이 주도한 경험적 서사체로서의 계몽적인 역사 전기문학과 신소설 작가들에 의한 허구적 서사체로서의 신소설 두 가지가 상호 양분된 역사소설의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작가의 정치관 및 사회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물 우화 등 알레고리 형식을 차용하여 창작한 전자류는 전형적인 정치 소설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시기 정치소설의 정치적 담론은 노골적인 계몽담론과 함께 비판의식을 노정화시킨 것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신채호 초기 소설에서 전통적 설화의 양식을 받아들인 일부 소설들이 이상향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정치적 의식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등에 이어진 현대의 역사소설은 근대적 의식과 리얼리즘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영웅 서사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일반에게 수용되었다.²⁵⁾ 전통적 역사소설이 몽환성이나 환상성, 적강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에 비해,²⁶⁾ 환상성은 근대 역사소설이 배격해야 할 황당무계의 요소로서 치부되었다. 이 편향은 객관

학』 제4집, 1993.

전세영, 「공자의 정치적 이상향에 관한 연구-대동(大同) 소강(小康)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1.

23) 박용식, 「고소설에 그려진 충의 윤리-군담소설과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통권 제106권, 2000.

24) 신태우, 『하층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

25) 정창범, 「역사소설과 리아리티」, 『현대문학』 1955.10. 166쪽.

26) 김성룡, 『한국고전소설과 환상 미학』, 집문당, 1998.

성과 과학성, 역사적 실증주의, 서구에 대한 이상화로서의 근대화를 같은 차원에 놓는 이데올로기가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편 신문연재 양식을 통한 역사소설의 확장은, 역사소설을 쓰는 것에 대한 박종화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역사소설이라는 장르를 주류인 순수문학의 영역이 아니라 통속적인 대중소설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객관적 현실성의 역사소설과 대중성과 통속성을 담고 있는 역사소설로 이중 분류하는 방식은, 각각 작가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투철한지, 인물이 시대와 불화하며 어떻게 고뇌하고 있는지, 하는 엄숙주의의 담론에 따라 대하역사소설과 대중적 역사소설을 양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역사소설들은 인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역사적 사건의 서사적 재현보다 그 시대 상황 속에 위치했던 인간들의 삶에 대한 문학적 환기가 우선시되는 경향 때문이었다. 가공의 인물을 역사적 사건의 관찰자로 내세우거나,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허구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작가는 특정 인물과 거리를 좁힘으로써 선과 악의 심판자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드러내었다. 또한 과거에 비중을 두고 과거를 현실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결여감을 과거의 재해석과 의미부여를 통해 대리충족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현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사된 과거의 허구적 재현은 때로는 현재에 대한 거울로서 이상화된 과거라는 복고주의적 담론을 양산하였다.

27) 김현우, 「영웅소설의 변화와 대중성의 길」,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3-3. 대체역사소설과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

80년대 이후 등장한 역사소설들은 과거와 다른 미학적 양식을 채택함으로써, 역사소설의 존재 양식을 바꾸고 있다.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를 비롯한 대체역사소설이 출판되면서, 역사를 분리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역사적 사실을 불가역적이고 불연속적이며 고정된 것으로서 간주하던 관념이 가역적인 동시에 연속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 『역사속의 나그네』 등이 대체역사소설에서 더 나아가 한국적 SF의 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²⁸⁾ 이들의 작품은 한국적 역사성에 대한 정치적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재현의 방식, 소재로서의 활용도와 주제의식의 긴장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작가는 역사 해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편성하며, 더 나아가 현재와 이어진 과거를 아예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의 미래를 위해 변형시킨다. 따라서 역사소설의 흐름은 변혁의 동기와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현상은 전문작가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해 사이버문학의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보다 본격화된다. 대체역사와 연계된 SF 소설은 다른 양상의 정치적 이상향을 가진 타자성을 보여준다. SF 소설의 타자성은 현실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는 이질적 세계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타자성은 기이함과 경외로서 현실 너머의 세계를 현실과 대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SF 소설들은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를 배경으로 창작되지만, 실제 작가와 독자의 시야는 당대에 대한 재해석으로 맞춰진다. 그러므로 SF소설에서

28) 복거일, 『파란 달 아래』, 문학과지성사, 1992.

복거일, 『역사속의 나그네 1-3』, 문학과지성사, 1991.

나타난 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결국 당대의 문제적 지평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문제적인 현실을 극단적으로 강화한 것이 SF 소설에 나타난 시공간 배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F 소설에 드러나는, 일상성을 뒤흔드는 타자성은 바로 현실의 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잠복하고 있는 타자성이다. 그러므로 SF 소설의 극단적인 타자성은 현실에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 방식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해 보여준다.

한국의 현대문학사에서 SF의 역사는 그리 풍부한 편이 아니었으나,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고 사이버 문학이 보편화되면서 SF의 매니아 계층이 자체 사이트를 만들면서 사이버 문학으로 함께 포괄되고 있다.²⁹⁾ 한국적 SF 대표 작가로 알려진 “듀나”, 혹은 “이영수”는 작가 자신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단수인지 복수작가들의 연합인지조차 은폐되어 있지만, 뛰어난 단편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를 통한 현재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을 연속하여 배출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영미문학 스타일의 순수한 SF 소설은 아직도 드문 편이며, 대부분 미래 시공간 배경을 가진 것으로서 판타지와와의 퓨전 형태를 지닌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³¹⁾ 이는 작가와 독자 계층이 과학의 문학 담론화에 익숙지 않은 것이 주요인인 듯하다.

3-4. 사이버 역사소설의 양식과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

3-4-1. 사이버 역사소설의 인물론 - 역사를 주도하는 영웅

인물의 차원에서, 과거의 역사소설이 실존인물인 영웅의 인간적 고뇌

29) f-월드, <http://www.f-world.co.kr/> sf 월드, <http://myhome.naver.com/snuba94b/> 이원창의 sf 세상, <http://brainlee.net/> 정크 sf <http://www.junksf.net/>

30) 듀나(이영수), 『나비전쟁』, 오늘예감, 1997.

듀나(이영수), 『면세구역』, 국민서관, 2000.

듀나(이영수), 『태평양횡단특급』, 문학과지성사, 2002.

31) 임진운, 『대공학자 1-9(완)』, 청어람, 2002-3.

와 역사적 행보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동일시와 대리충족을 꿈꾸게 했다면,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보다 다양하게 허구화된 형태를 지닌다. 실존인물은 서사의 시간, 공간 배경의 틀을 제공하는 위치로 물러나고 역사소설의 주체는 변혁을 꿈꾸는 허구적 인물이 된다. 이 인물은 강한 동기로 과거의 정치적 개혁과 혁명을 시도하며, 그 결과 현재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라니안 사이트(www.lanian.net)에서 연재되었던 『쥬신건국사』의 경우, 기동훈련 중 선조 때로 타임 슬립한 특수부대 대원들이 각자 조선 사회에서 요직에 오르며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국내의 내치와 제도 정비, 외교와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보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위기와 극복이라는 장치를 통해 지속된다. 삼룡넷 사이트(www.3dragon.spo.com)에 연재하다가 완결되어 출판과 동시에 삭제된 『카르마의 구슬』은 여성 영웅의 서사이다. 이계의 인물이되, 현세상에 던져졌다가 여기서 준비된 인물이 되어 다시 이계로 돌아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

사이버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의도적이건 본의가 아니었던 간에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위치에 놓인다. 갈등하고 고뇌하다가도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다. 희생과 포부의 실현과정을 통해 이상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고도로 정치적인 담론을 드러내는 인물들이다. 아울러 인물들은 서사의 진행과 함께 자신의 모호한 정체성을 탐색해 간다. 인물의 정체성 탐색과 정치적 이상의 실현은 같은 궤를 밟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자격과 책임, 의무를 고뇌하며, 사회 역사와 개인의 관계, 인간 본연의 속성에 이르기까지 보다 존재론적인 의미까지 탐색하게 된다. 무협의 틀을 빌어 영웅

의 자기성장과 사회적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³²⁾

활발하게 이루어진 창작만큼이나 다수의 작품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열심히 읽는 독자계층일수록 잠재적인 작가가 되며, 소설 읽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가와 의견교류하면서 소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그 일환으로 게임 시나리오, 만화, 패러디, 외전, 팬픽, 속편, 인물의 일러스트, 작품 속 세계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서브텍스트를 창작하여 부가하기도 한다. 독자는 자신과 동일시된 허구적 인물의 사상과 정치적 이상을 함께 공유하며 교류하고, 텍스트 외부에서 창작과정을 지원하거나 부텍스트로서 재생산에 참여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독자가 됨으로서 작가와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의 완성을 시도해 간다.

사이버 문학은 아마추어들의 문학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창작과 수용과정에서의 강한 집단성을 드러낸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작가층이 모여서 창작 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의 게시판 형식을 통해 작품을 연재형식으로 올려 공개한다.³³⁾ 마니아 계층을 형성하면서 작가와 독자의 교류, 상호간 경계 허물기를 통해 소설이 그려내는 타자성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며, 비슷한 연령대의 작가와 독자들이 유사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함축하고 장르의 문법이라는 규칙에 동의하면서 창작과 수용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3-4-2. 사이버 역사소설의 시공간성 - 이동과 창조의 적극적 혁명

32) 유기선, 『극악서생 1-9, 2부 1-8, (미완)』, 자음과모음, 2000.

33) 은자림, <http://www.etale.net/> 삼룡넷 <http://www.3dragon.net/> 커그 <http://www.fancug.net/> 유조아 <http://www.ujoa.com/> 모기카페 <http://mogi.dasool.com/> 라니안 <http://lanian.net/> 고무림 <http://www.gomurim.com/>(현 문피아 <http://www.munpia.com>) 북풍표국 <http://www.newmurim.com/>

사이버 역사소설은 역사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허구화 방식도 변별된다. 배경으로서의 특정 시대의 시공간성을 규정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사이버 역사소설은 보다 다양한 시공간성을 차용한 허구화 방식을 시도한다.

이 소설들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적극적이다. 이 갈래의 특징 중 하나인 환상성은 타자와의 대면 방식이다. 가상의 시공간을 창조해냄으로써 타자와의 대면은 주체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설들은 타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타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실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역사소설들은 시간여행이라든가 이계진입과 같은 통로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 맥락을 만들고,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현실세계의 맥락을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타자성은 유희로서의 타자성이 된다.

이 계통의 소설들은 특정한 시공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추상적 관념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타자성과의 대면은 환상성의 개입으로 구현된다. 현대인이 우연한 기회에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자신의 정치적 이상향을 실현한다거나³⁴⁾ 가상의 게임공간이나 판타지적 세계, 이계의 공간에서 이상화된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것³⁵⁾ 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이버 문학은 단일 텍스트가 아니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재생산의 가능성을 가진 문화적 출처로 부각되는 것이다. 『쥬신건국사』, 『한제국건국사』, 『시간의 조정자』처럼 같은 공간에서 시간성을 거슬러 올라간 인물들이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를

34) 광정민, 『환생군주 1-6』, 청어람, 2004.

35) 김상현, 『탐그루 1-15』, 명상, 1999.

꿈꾸며 과거를 변형시키는 것은 변형된 대체역사소설에 해당된다.

차원이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간 뒤, 이계를 실험무대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가을왕』, 『소드앰페러』, 『레벨』 등의 남성 영웅 지도자들과 『루스벨』, 『카르마의 구슬』 등에 나타난 여성 영웅 지도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향을 꿈꾸고 실현시킨다. 이른바 이계진입 소설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소설들도 정치적 담론과 이상향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역사소설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지닌 소설들이다. 또한 판타지나 무협이라는 기존 장르의 형태 안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는 소설들도 등장한다. 『지크』나 『신군주론』, 『레바단의 군주』, 『붉은 황제』와 같은 소설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나 영지를 통치하고 경영하면서 작가 자신이 지닌 정치성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실험한다.³⁶⁾

정치적 이상향에 대한 갈망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온다. 홍길동이 이 땅을 떠나 울도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전설상의 이어도가 가상의 바다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역사소설이 정치적 담론을 담고 있을 때,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 토로와 대안으로서의 이상향을 지시하게 된다.³⁷⁾ 과거 시대나 이계를 주 무대로 삼는 것은 역시 허구화와 정치적 이상 실현과정의 용이함 때문이다. 고전 서사체가 꿈이나 적강형 소설의 양식을 통해 현실과 이계를 넘나들면서 정치적 이상향을 만들어냈다면, 사이버 소설들은 시간여행이나 차원이동을 통해 정치적 이상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과 새 시공간의 창출은 이상향의 시공간

36) 김한식, 「문학 속의 혁명과 유토피아」, 『사회비평』 제13권, 1995.

37) 김종희, 「유토피아 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식」, 『어문연구』 통권 제59호, 제60호 합집, 1988.

김진영, 「세이렌, 미메시스, 유토피아 - Th.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사회비평』 제22권, 1999.

성 창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른다.

3-4-3. 사이버 역사소설의 서사구조 - 투쟁과 성취의 실천 과정

사이버 역사소설의 서사가 이루어지고 작동되는 흐름을 고찰하면, 과거 영웅의 일대기가 보여주었던 서사행정이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나 이계진입, 차원 이동 등은 액자소설적 구도로서 액자 안과 밖의 세계가 이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이질적이고 분리된 세계이되, 작가와 독자에게 있어서는 내용상 동질적인 세계로 성립된다. 내부 액자 세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성공은 바로 외부 액자 소설의 정치적 성공에 값하기 때문이다. 액자의 안과 밖은 때로는 현실과 이계, 이계와 현실, 판타지적 이계와 무협적 중원세계, 무협적 무림세계와 현실의 교차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사적 진행과정은 바로 정치적 행보의 과정이고, 인물의 정체성 탐색의 과정이며, 투쟁을 통해 성취하는 과정이 된다. 전통적인 영웅의 서사가 보여주는 탄생과 성장, 좌절과 극복을 통해 성취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서사적 진행의 요소로서 투쟁과 성취 사이의 긴장관계는 인물과 작가의 밀접한 거리에 의한 시점과 초점화의 활용 방식, 현재 우리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어휘와 언어적 차용으로도 나타난다.

4. 사이버 역사소설에 나타난 이상향의 정치적 담론의 의미

사이버 서사문학 텍스트는 판타지, 무협, 로맨스 등의 기존장르를 한국적 상황에 맞춰 변형함으로써 매체변화에 따른 문학의 양식과 정치적

담론을 드러낸다. 문학의 주체는 적극적으로 현실에의 불만을 토로하며, 그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성을 탈피해 환상 속으로 들어가 기이한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계진입, 환생, 대체역사, 정치적 이상의 실현, 국가나 영지의 경영, 게임의 가상현실, 무협의 중원세계, 이상화된 확원 공간 등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타자의 변혁을 시도한다. 사이버 서사 텍스트의 이런 경향은 기존의 어떤 서사 텍스트들보다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이며, 일상에 대한 강한 변혁의지의 시도이다.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SF 소설 텍스트는 당연시되어온 일상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타자화함으로써 일상에 대한 강한 변혁의지를 자신의 정치적 담론으로서 드러낸다.

사이버 역사소설은 하위 갈래로서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문학행위 주체의 타자성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이상향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역사소설은 자체의 미학적 구성방식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담론을 담고 있다. 그것은 대안으로서의 이상향 건설의 과정이고, 또한 현실의 디스토피아를 탈출하고 불식시키기 위한 유토피아 의식의 충족 과정이다.³⁸⁾ 이상향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담론도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소설은 결말구조보다 과정의 구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렀을 때, 때로 사이버 역사소설은 이상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³⁹⁾

완벽한 이상향이라 믿었는데, 그것은 항상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디스토피아적 상황으로 끌어내려진다. 때로는 이상향에 진입해 체험을 통해 디스토피아임을 깨닫고 제 3의 이상향을 추구하거나 (『엘리시움』) 현실

에 복귀하여 현실의 이상형을 탐색해나가기도 한다.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⁴⁰⁾ 매체로서의 사이버 세계 자체가 정치 동호회나 정치 전문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치적인 저변을 확대시키고 대중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⁴¹⁾

현실에 없기 때문에 이상향인 경우도 있지만, 추구하는 이상향의 논리 자체가 개인의 체험적 서사에서 비롯된 경우, 주관적인 정치적 경향이 소설에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더구나 과거 역사로의 회귀를 말하는 소설일수록 우파적인 경향이 짙어지면서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이상화로 드러나는 것이 소설 속 정치적 담론의 다양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될 것이다.

38) 이종숙, 「역사속의 유토피아」, 『외국문학』 1987년 가을호, 1987.

이한구, 「유토피아와 반 유토피아」, 『철학과 현실』 제13권, 1992.

39) 김경환, 「모어의 유토피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정치성 재고」, 『비평과 이론』 제3권, 1998.

40) 박인찬,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소설 - 역사 다시쓰기와 저항적 자아찾기」,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1988.

41) 정철희, 「한국대중정치의 사회적 조건」, 『98후기 사회학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1998, 22-31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상현, 『탐그루 1-15』, 명상, 1999.
곽정민, 『환생군주 1-6』, 청어람, 2004.
듀나(이영수), 『나비전쟁』, 오늘예감, 1997.
북거일, 『역사속의 나그네 1-3』, 문학과지성사, 1991.
유기선, 『극악서생 1-9, 2부 1-8, (미완)』, 자음과모음, 2000.
임진운, 『대공학자 1-9(완)』, 청어람, 2002-3.
은자림, <http://www.etable.net/>
삼룡넷 <http://www.3dragon.net/>
커그 <http://www.fancug.net/>
유조아 <http://www.ujoa.com/>
모기카페 <http://mogi.dasool.com/>
라니안 <http://lanian.net/>
고무림 <http://www.gomurim.com/>(현 문피아 <http://www.munpia.com>)
북풍표국 <http://www.newmurim.com/>
f-월드, <http://www.f-world.co.kr/> sf 월드, <http://myhome.naver.com/snuba94b/>

2. 논문 및 단행본

- 김성룡, 『한국고전소설과 환상 미학』, 집문당, 1998.
김종희, 「유토피아 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식」, 『어문연구』 통권 제59호, 제60호 합집, 1988.
김한식, 「문학 속의 혁명과 유토피아」, 『사회비평』 제13권, 1995.
박계홍, 「한국역사소설사(1장-3장)」, 『어문연구』 제3집, 1963
박상천, 「매체의 변화와 문학의 변화-인터넷 상의 사이버 문학을 중심으로」, 『사회이론』(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한국사회이론학회, 2001,
박종화, 「삼국풍류 서문」, 『한국삼대작가선집』, 삼성출판사, 1970

- 송승철, 「가상역사 소설론 : 허구적 역사 구성과 실천적 관심」, 『실천문학』 1993년 겨울.
염상섭, 「역사소설의 시대」, 『조선일보』, 1934.12.20.
오양호, 「디지털 시대 한국소설」, 『한민족어문학』 41집, 2002.
이종숙, 「역사속의 유토피아」, 『외국문학』 1987년 가을호, 1987.
이한구, 「유토피아와 반 유토피아」, 『철학과 현실』 제13권, 1992.
임성래, 「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연구」, 『배달말』, 배달말학회, 1995.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민환, 「노자의 이상향에 관한 연구-노자의 소국과민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4집, 1993.
조진기, 「작가와 역사해석 - 춘원, 동인, 월탄의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1집, 1974.
황국명, 「한국현대성장소설의 정치적 환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5집, 한국문학회, 1999.12.
홍성암,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양어문』, 한국어어문화학회, 1986.
홍효민,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현대문학』, 1955.2.
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역, 청아출판사, 1991.
A. O. 올드리지, 「루카치 이후의 역사소설」, 『외국문학』 1989년 겨울호, 1989.

Abstract

The Discourse & Meaning of the Political Ideal Country in Cyberspace Historical Fiction

Rah, Eun-Jean

The meaning of the existing historical fictions have been narrow-mindedly applied to the stories whose materials are a history, especially to the feature-length stories. The Epic of the traditional heroes that had appeared in myths, legends and folktales developed a specific form of epics based on a certain space-time and was embodied in the form of a chronicle of a hero in ancient novels. The historical fictions after the mid-80s changed their genre and discourse by adopting the aesthetic styl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Novelists reorganize the past history by actively involving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and stepping forward, intentionally reform the past that connects with the present for the future of an ideal world that they dream. This is getting full-scaled as the amateur writers enter the cyberspace literature sector by using the Internet media. Readers share and the ideas and political ideal of the fictitious persons by identifying them with theirs and exchange each other and either support the authors' writing process on the outside or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production as a subtext. When a historical fiction contains a political discourse, it represents a complaint on reality and an ideal world as an alternative. In that respect, a cyberspace historical fiction demonstrates a specific political discourse

through its own esthetic constructive method. It is a process of building a new ideal world as an alternative and also an ritual of utopia, a kind of otherness, to escape from a reality dystopia.

Key Words

Historical story, cyber literature, epic of heroes, ideal world, discourse, historical consciousness, political, otherness, substitute historical story, utopia and dystopia

* 위 논문은 2007년 10월 28일에 투고되어, 11월 21일 심사 완료 후, 11월 2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